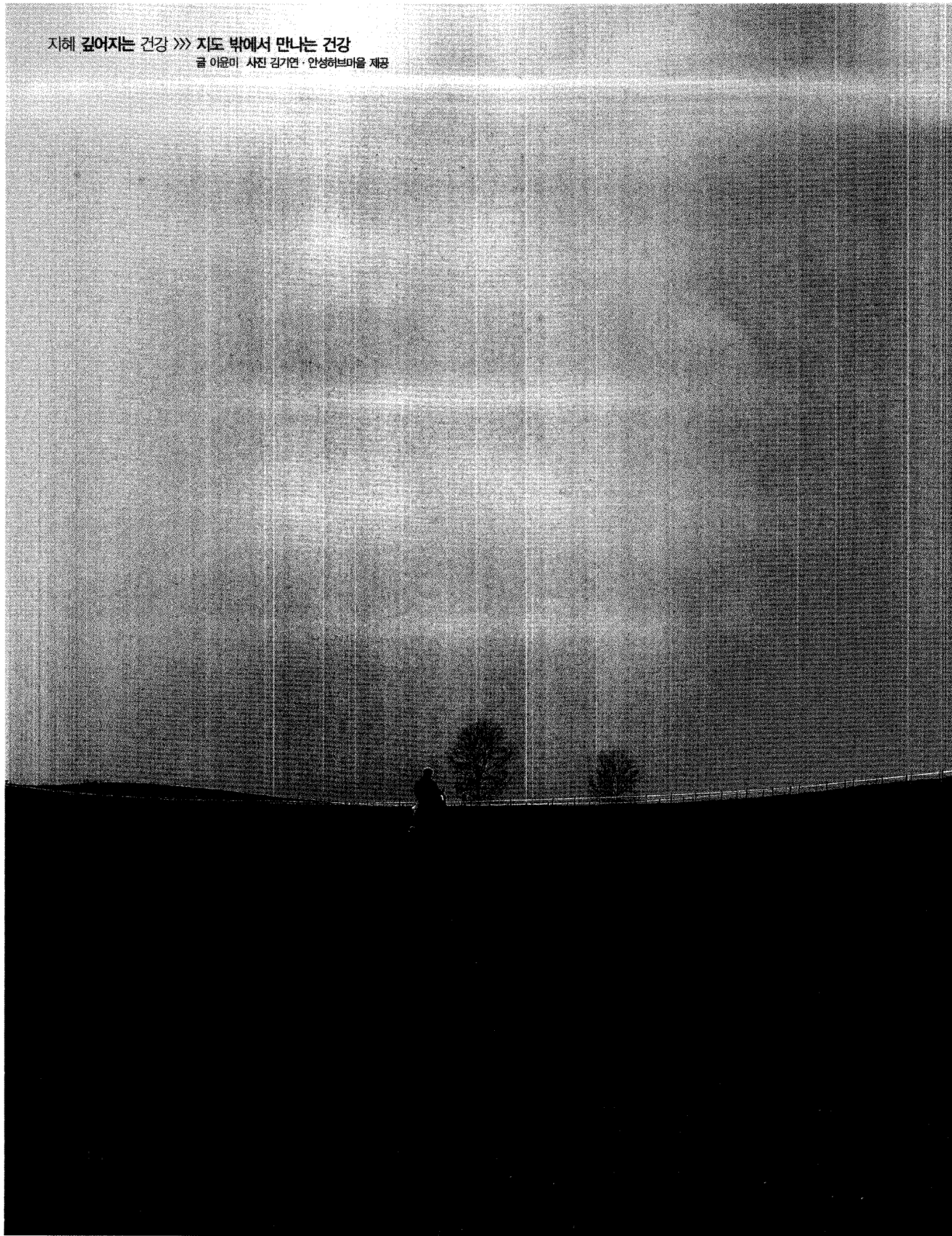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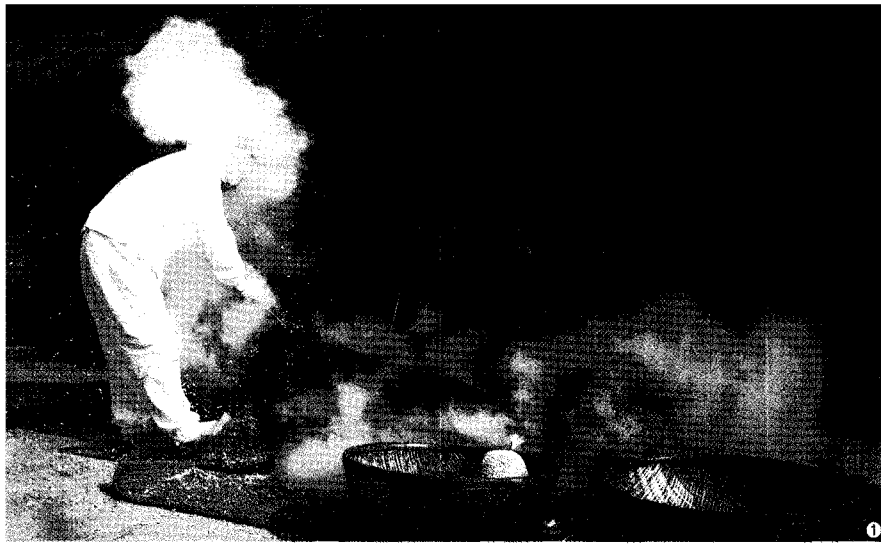
지혜 깊어지는 건강 >>> 지도 밖에서 만나는 건강
글 이윤미 사진 김기연·안성하브마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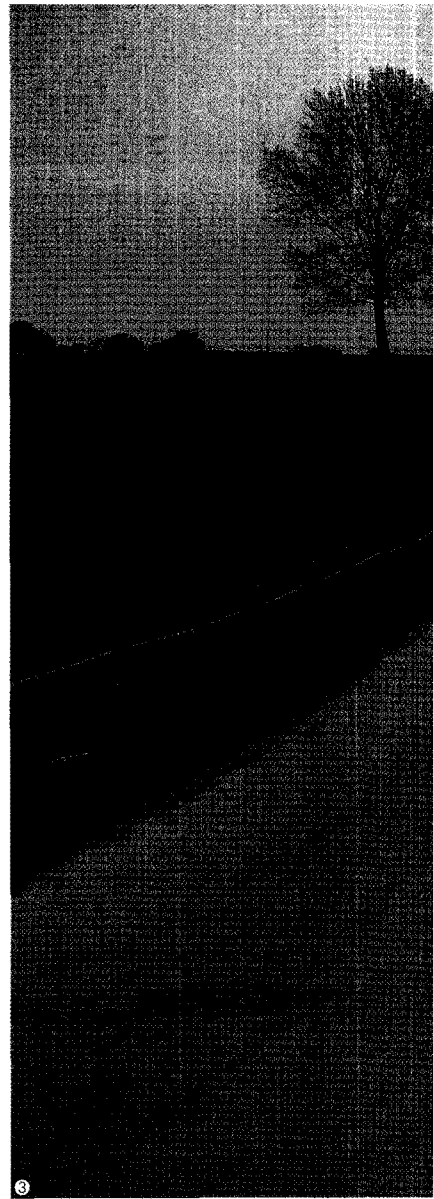
예술과 자연의 조화가 '안성맞춤' 안성

안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안성맞춤이 아닐까. 제 짝이 아니었던 것을 갖다 맞출 때 매우 잘 맞음을 비유하면서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쓴다. 안성의 유기제품은 장인정신과 뛰어난 솜씨로 정성껏 만들어 품질이나 모양 등 기교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켰기에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탄생한 것. 그러나 5월의 안성은 다른 의미로 '안성맞춤'이 성립한다. 봄이란 계절이 주는 설렘, 영화 '왕의 남자'와 함께 유명세를 치른 남사당, 5월에 더없이 좋을 안성허브마을. 서울에서 두어 시간이면 갈 만큼 가까운 거리의 안성이야말로 봄의 여행지로 안성맞춤이지 않겠는가.





1



3



2

1. 안성장은 볼거리가 많다.
2. 친근한 할이 반갑게 맞이한다.
3. 이국적인 풍경의 드넓은 초록 들만이 담긴 사진 한 장.

한없는 초록이 눈앞에 펼쳐지는 안성목장

안성목장을 처음 접한 곳은 여행 잡지를 뒤적일 때였다. 이국적인 풍경의 드넓은 초록 들만이 담긴 그 사진 한 장. 그곳이 안성이라니 예상 밖 정답을 받아들였을 때처럼 그저 신기할 뿐이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안성목장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넓은 초지에 넓게 펼쳐진 곳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선사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출입에는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사진은 찍을 수 있으니 넓은 초원이 아른거릴 때 찾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흔히들 안성목장이라고 하면 이름 때문에 소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안성목장의 모습은 축사 배후에 넓게 펼쳐진 초원이다. 안성목장은 1969년 시범목장으로 농협중앙회가 마련하였다. 39만 평 광활한 초지를 활용하여 축종별 시범목장, 국내최초 유기 축산목장을 거쳐 현재는 대단위 가축사육목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올해 개장 예정인 NH Farm Land는 목장의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하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한 체험학습공간, 녹색휴양공간으로 가까



안성의 된장 맛 }

안성 서일농원은 2,500여 개의 향아리에서 된장을 비롯한 장류를 숙성시켜 한국의 정맛을 지키고 이어나가는 곳이다. 된장은 발효식품 가운데서도 항암효과가 탁월하다. 대한암협회의 암 예방수칙 중 '된장국을 매일 먹어라'는 항목이 들어 있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그 효과가 공식화되는 추세다. 그 외 된장 속에 들어 있는 미생물은 특수한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속의 혈전(피가 응고해서 뭉치는 것)을 분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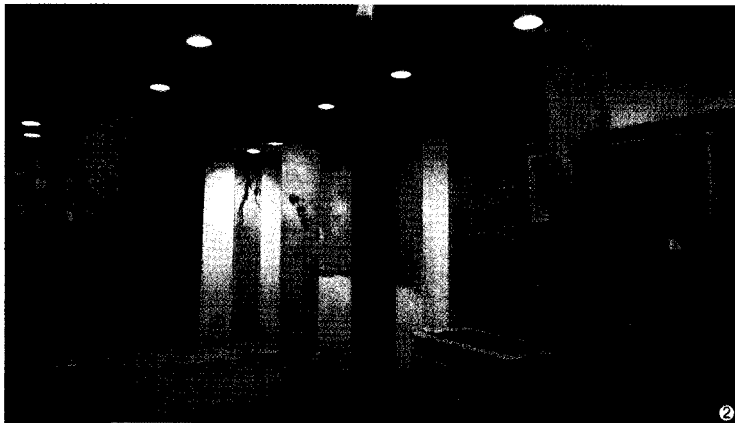
은 국내 최고의 농축산 테마공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미 운영 중인 승마센터는 600여 평의 실내 승마장, 1,700여 평의 실외승마장 등 최신시설을 갖추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며 안성목장을 특별한 관광지로 만드는데 한몫했다. 승마센터는 구제역에도 통제 없이 출입할 수 있다.

남사당의 후예들이 안성에 남아 그 전통을 잇는다

안성에 왔으니 남사당 배우덕이 상설공연을 지나칠 수 없다. 4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8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연이 펼쳐진다. 남사당은 조선 후기에 장터와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곡예, 춤, 노래를 공연했던 집단으로 전문 공연예술가들로 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연예인 집단이다. 조선 숙종(1661~1720) 때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남사당패가 시작되고 전국 남사당패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의 불당골이라 전해진다. 19세기 말, 여자로서 15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기예가 출중하던 배우덕이가 안성 남사당패의 대표인 꼭두쇠가 되면서



1



2

1. 안성시 삼죽면 양지바른 아트막한 산 아래 마련된 허브마을은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해 놓고 있다.
2. 허브농장과 공방, 화장품 공방, 아르마테라피 카페, 허브숍 등 허브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서 있다.
3. 허브는 향기나 향미가 있으며 건강에 유용한 식물을 통칭한다.





남사당을 최고의 민중 공연예술단으로 승화시켰다. 배우덕이의 남사당패가 공연으로 노역자들을 기쁘게 하여 경복궁 중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흥선대원군은 노비보다도 천하던 남사당패에게 당상관 정3품(지금의 도지사급)의 벼슬에 해당하는 옥관자를 수여하였다고 전해온다. 후일 일제의 침략과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해체와 결성을 반복하면서 그 명맥마저 끊길 뻔한 시련을 겪게 되었지만, 남사당의 근거지이자 생활터전이었던 안성에서 남사당의 후예들이 안성과 서울을 중심으로 남사당의 전통을 끈질기게 이어오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남사당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게 되었다.

공연은 지난해 10월 건립된 남사당 공연장에서 실내공연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공연진행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공연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공연 전 예약은 필수다. 인터넷과 전화로 가능하며 예약비용은 1,000원이다. 만약 예약 없이 방문한 관람객은 잔여석이 있다면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시크릿한 공간의 허브향기 안성허브마을

만개한 꽃을 맞이하기 위해 방문한 곳은 안성허브마을이다. 안성시 삼죽면 양지바른 야트막한 산 아래 마련된 허브마을은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야외 허브공원에는 이미 완전해진 봄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다투어 피어난 꽃들이 허브마을을 5월의 알록달록 색감으로 물들였다. 가족들이 편하게 찾아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둔 이곳에는 허브로 만든 다양한 작품까지 전시하고 있어 한 번쯤 둘러봐도 좋을 듯하다. 또한, 허브농장과 공방, 화장품 공방, 아로마테라피 카페, 허브숍 등 허브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서 있다. 허브는 향기나 향미가 있으며 건강에 유용한 식물을 통칭한다. 로즈메리, 페퍼민트처럼 꼭 외래식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냉이, 썸바귀, 곰취 등 우리나라 산야에서 쉽게 발견되는 토종식물 대부분이 허브에 속한다. 허브마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 운영된다. 허브마을 체험 참가비는 종류에 따라 1만~1만 5천 원이다.

안성맞춤 유기를 만날 수 있는 안성맞춤박물관

안성에 왔으니 '안성맞춤' 유기를 보고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안성시 대덕면 중앙대학교 캠퍼스 입구에 있는 '안성맞춤박물관'은 유기를 중심으로 안성의 옛 모습과 특산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유기전시장에서는 제사용, 식사용, 악기용 등 용도별로 다양한 유기 종류 전시와 생산과정을 실물 크기 모형으로 자세히 볼 수 있다. 안성이 조선 시대 전국 3대 시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안성시장은 서울보다 두 가지가 더 많이 난다.'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당시 안성장은 볼거리가 많았다고 한다. 안성맞춤 박물관 내에는 안성장의 모습을 재현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고운 비단을 파는 포목점과 번쩍번쩍 빛나는 유기전을 비롯해 다양한 상점이 사실감 있게 전시되어 있다. 또한, 100년 전 시장 사진과 함께 실제로 판매됐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어 번성했던 안성장이 좀 더 실감 나게 느껴진다.

쉬엄쉬엄 안성을 구경하다 보면 경기도 어디쯤 위치한, 특별하지 않던 안성이 특별한 공간으로 각인될 것이다. 예술의 혼과 맑은 자연이 만나는 곳, 꿈은 장인정신 속에 담아 낸 특별한 공간이 바로 '안성맞춤' 안성이다. 안성은 마치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때론 삶의 속도에서 내려서서 자기만의 속도로 보고 듣고 걸어가.' 라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삶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예술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안성맞춤' 안성유기처럼 말이다. **MEDI**CHECK

